

25장 안식년과 희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사는 것은 희년에 종을 놓아주거나 친족을 해방시켜 주는 것에서 나타난다. 고엘에 대한 바른 정신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일이다.

1. 안식년 (25:1-7)

희년에 대한 규례는 안식년에 대한 교훈에서부터 시작한다. 땅이 안식하는 것을 통하여 온 세상에 안식이 임할 것을 가르쳤다. 희년은 속죄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한다. 이것은 참된 안식이 죄의 문제를 속하는 것과 연결되었음을 알려주고 앞으로 모든 만물에 참된 자유가 있을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2. 희년의 선포와 안식년 (25:8-22)

- 1) 희년의 선포 (25:8-12)
- 2) 기업의 회복 (25:13-17)
- 3) 토지의 안식년 (25:18-22)

3. 기업을 무르는 규례 (25:23-38)

- 1) 기업 무르기 규례 (25:23-28)
- 2) 성 안의 가옥 무르기 규례 (25:29-34)
- 3) 이자 받는 것을 금함 (25:35-38)

4. 종의 해방 (25:39-55)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여호와와 품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종으로 팔지 말라고 하였다(25:42, 5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그들의 사회관계를 형성하였다.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종교적인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관계에서도 나타나게 하였다.

희년에 대한 규례는 기업을 무르는 것(23-38절)과 종을 무르는 것으로 구성된다(39-55절). ‘고엘’이 친족을 대신 하여서 그 값을 치렀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또한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25:23) 하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희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희년은 안식년에 이어서 시작되었으므로 두 해나 농사를 짓지 않았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규례였다(25:18-19).

묵상과 실천:

희년의 해방의 복음

종을 해방시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일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출애굽의 구속 사역을 깊이 깨닫고 있으면 자기도 하나님의 ‘품꾼’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자기에게 종으로 팔린 자를 엄하게 부리지 않을 것이다(25:43, 46, 53). 종을 엄하지 부리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도 연결된다(25:43).

희년은 출애굽의 구원에 뿌리를 둔 것이고 메시아의 더 큰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희년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주님께서 전파하신 ‘자유’는 “제 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25:10)에 나오는 ‘자유’와 같다.

예수님의 희년 선포는 죄 사함과 연결된다. 희년은 7월 10일 속죄일에 나팔을 불면서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시면서 이 희년을 선포한 것이다. 희년은 출애굽의 구원이 그 배경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양으로 출애굽의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희년을 친히 이루어 가셨다.

우리는 희년에 종을 해방시킨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섬김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형성된다. 바울 사도도 다른 성도의 믿음을 주장하려(lord over) 하지 않았다(고후 1:24).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선생님이 계시고 모두는 종이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려는 마음을 버리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재물을 섬기는 세상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소유를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위탁해 주신 재물로 형제를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하신다(행 2:44-45; 4:32-35).

속죄일에 선포된 희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죄 사함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 썩어짐의 종 노릇하는 데에서 해방되는 그 날에 희년의 복음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25장 익힘 문제

1.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 간 후에 그 땅으로 언제 안식하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4절)
2. 희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 1) 희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8-11절)
 - 2) 어떤 절기에 무엇과 함께 시작합니까? (9절)
 - 3) 희년에는 땅을 쉬게 하였는데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절)
3. 1) 이스라엘에서 토지를 영영히 팔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
 - 2) 이스라엘은 어떤 자로서 살아가야 하였습니까? (23절)
4. 1)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는 누가 그 땅을 물려야 하였습니까? (25절)
 - 2) 토지를 무른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손에 있다가 그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까? (28절)
5. 이스라엘에서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몸을 판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 1)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어떻게 대하라고 하였습니까?
 - 2) 그를 언제 본족으로 돌아가게 해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까? (40절)
 - 3)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누구의 품꾼이기 때문입니까? (42절)
6. 이스라엘 사람이 종을 얻으려면 어떤 자들 중에서 취하라고 하였습니까? (44절)